

압구정의 역사경관의 문화 콘텐츠적 가치

The Value of Culture Contents on Historical Landscape of Apgujung Pavilion

김선화*, 이재근**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Sun-Hwa Kim(hwabaick777@hanmail.net)*, Jae-Keun Lee(jklee@smu.ac.kr)**

요약

한강은 한양도성 성저십리 남쪽 경계를 흐르는 승경지여서 별서지로 유명하였다. 연구는 15c 중엽 한명회가 강 남쪽에 세웠던 압구정에 관한 고찰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압구정이 세워졌던 한강은 문화적인 풍류지역이었다. 둘째, 서호의 정자는 1454-1456년 조성된 초정, 동호의 압구정은 1469-1473년에 조성된 별서였다. 서호의 정자는 잊혀졌고 동호의 정자는 압구정동 이름에서 기억되고 있다. 셋째, 압구정 역사문화경관에는 시대별 경관의 특성과 유래가 담겨 있어 압구정동은 지명의 스토리와 함께 인식된다. 압구정이 세워졌던 한강은 현대적인 도심의 경관에도 불구하고 수경관이 아름답다. 넷째, 압구정지에는 한강을 조망하는 시각적 경관과 문헌을 통한 역사문화적 경관의 향유가 있고, 경관은 한강이 가장 중요한 경관텍스트이다. 압구정 역사문화경관은 변화하지만,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이 있는 한 역사문화적인 경관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때 경관적 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강 수계의 역사경관 복원 시 압구정 스토리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은 합양될 수 있다.

■ 중심어 : | 압구정 | 경관가치 | 장소성 | 한강정자 | 한명회 |

Abstract

The Han river flowing the southern boundary of Hangyang city wall was known for scenic remote villa spot. This research is about a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value of Apgujung built on hills of the Han river by Han Myeong Hoe in the mid-15th centu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an river has been a cultural poetical place. Second, the pavilion of west river was built as thatched roof at 1454-1456, while that of east river was erected as grand villa at 1469-1473. Third,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periodical landscape and origin was includ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therefore, Apgujung-dong has been recognized with the story. Han river where Apgujung was built has beautiful water landscape in spite of the landscape of modern downtown. Fourth, there are placeness and Han river of main landscape text streams nearby Apgujung sit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Apgujung should be changed, but, the landscape value could be progressed with the application as cultural contents while the Han river flows. It could be cultivated on the application of various culture contents and story of Apgujung when the historical landscape of water system be restored in Han river.

■ keyword : | Apgujung | Historical & cultural Landscape | Placeness | Han River Pavilion | Han Myeong Hoe |

I. 머릿말

한강(漢江)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481.7km[1]의 물줄기이며, 서울 북동쪽에서 와서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서해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한강은 예로부터 물길을 이용하는 교통과 경제적인 수단의 요충지로서 중요했다. 또한 성리학(性理學)의 기반위에 사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조선시대의 문인묵객들에게 한강은 도성과 가깝고 경치가 아름다워 누구나 즐겨 찾고 싶어 하는 명소였고, 한강의 수경관은 물, 빛과 바람 등 자연환경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물결 따라 삶의 또 다른 사유의 의미와 자연풍광을 부여하는 주요한 경관자원이었다. 권력가들은 한강 양안(漢江兩岸)에 별서(別墅)를 비롯한 누정을 세워 연회, 풍류, 모임, 강학, 시회, 접대의 문화적 공간과 휴식, 은둔 또는 은일 등의 장소로 사용했다.

한강의 누정은 물을 중심 경관 텍스트로 하여 병풍을 두른 듯 주위를 위요한 산세와 가까이 위치한 한양 도심의 문화경관 콘텐츠로서 조선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알려진 동시대 문화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러므로 한강 누정과 강호의 뱃놀이를 하면서 읊은 시문, 회화가 고문헌과 화첩에 전하며, 6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경관의 가시적·비가시적 문화콘텐츠의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한강의 정자(亭子) 중 지금까지 잘 알려진 압구정(鴨鵝亭)은 15세기 중엽 권신(權臣)이었던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수려한 풍광 속에 세웠으며, 세도가였던 한명회의 권세가 커지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예겸(倪謙)의 압구정기문(鴨鵝亭記文)을 받은 후 정자는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조선을 방문하는 사신(使臣)들까지 압구정을 들르고픈 명소로 꼽았다. 1487년 한명회의 죽음과 오랜 세월의 부침에 따라 주인을 잃은 정자는 점차 파괴되었지만 그 명성은 오늘날 압구정동이란 행정명의 유래가 되었고, 사가집, 식우집, 삼탄집, 황화집 등 압구정 관련 시문과 경제정선의 한강그림에서 역사문화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강변의 정

자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한강 남쪽에 높게 솟아오른 언덕이었던 압구정지 또한 한명회 사후 근 500년이 지난 1960-70년대 한강공유수면매립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되어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되었고, 단지 안에 있는 표석과 안내판을 봐야만 압구정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압구정이 없어진 현대에 와서도 조선시대 미관말직에서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의 주역을 발관으로 상당부원군(上堂府院君)이 되었던 한명회의 입지전적인 세도가의 명성과 함께 조선시대 한강의 명소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수면 밖으로 나오곤 했다. 한강의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때 한강변에 있었던 정자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될 것이다.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한강의 정자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한강변에 있었던 정자의 위치, 경관, 정자와 관련된 작정자의 자연관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는 한명회 정자의 조성배경, 이전경위와 경관적 특성, 문헌, 회화와 지도에 표현된 경관을 분석하여 경관, 장소적 특성과 중심경관 텍스트를 도출한다. 표석만 남아있는 현대에 와서도 회자되고 있는 압구정의 최초정자와 압구정동의 지명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의 연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경관을 사료와 지명도에 의거해 복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한강 수계의 역사문화경관 복원 시 스토리가 있는 경관 복원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자료의 바탕이 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연구는 한국고전종합DB의 압구정항목 242건을 검색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을 조사하였고 그 중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문, 시문 등에서 경관적 요소를 도출하여 압구정의 경관과 장소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는 첫째, 한명회가 압구정을 조성한 조선 초기에서 표석만 설치되어 있는 현대까지 한강변정자의 조성배경을 조사하고, 둘째, 압구정의 이전경위, 특히 서호에

서 동호로 옮겨지게 된 작정시기와 경관적 특성을 조사하며, 셋째, 한강 풍광을 문헌, 회화와 지도 자료에 표현된 경관 텍스트의 맥락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압구정의 역사·문화적 경관가치를 조명하고, 장소성, 즉 장소적 특성과 중심경관 텍스트를 도출한다. 문헌고찰의 과정을 거쳐 현대 압구정지의 현황과 역사문화적 경관가치를 조명하여 문화콘텐츠 활용의 근거를 밝힌다.

표 1. 압구정 조사자료

종류	문헌	내용	비고
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서거정 사가집의 압구정기문, 사가 시집5권, 삼탄집 6권의 시문, 세조실 록, 성종실록	계유정 년 (1453) 이후
회화	경교명승첩 등	압구정도, 계획도 등	
지도	도성도, 한양도 등	서울의 한강 지역	
사진	표석	압구정지	

III. 결과 및 고찰

1. 조선시대 한강정자의 조성 배경

1.1 경강(京江)의 서호(西湖)와 동호(東湖)

서울의 한강은 조선시대에는 경강(京江)이라고 불렀으며 광진(廣津)에서 양화진(楊花津)구간[1]이다.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면서 주변 산세와 어울려 풍광(風光)이 뛰어난 뿐더러 서해의 갈매기가 날아드는 등 명승지였다. 강폭이 넓고 유속이 느린 마포, 서강, 양화도 부근을 서호라 불렀고 옥수동 앞의 저자도가 있던 한양도성의 동편 두모포(豆毛浦) 지역은 동호(東湖)라고 불렀는데 “저자도 일대의 한강을 동호로 한다. 둘레가 60리에 달하여 광호라고도 불렀다. 1476년11월에 지은 한명회의 압구정 등이 강가에 늘어서 있었다[2]”고 서술하였다.

마포나루가 있던 서호지역은 조운(漕運)이 활발하여 많은 배들이 입항하고 도성에 출입하는 경강상인으로 붐비던 중심 나루터였으며 잠두봉, 여의도 등 주변의 자연 산세, 모래톱과 날아드는 갈매기 등 수려한 경관의 명승지였다. 서호에 백사장이 동서로 길고 넓게 펼쳐진 가운데 갈대가 무성하고 양편에 높은 산언덕이 있던 섬이 현재의 밤섬(율도,栗島)과 여의도(당시 잉화도, 仍火島, 여

화도, 汝火島)인데, 수심이 낮아지는 갈수기나 물이 어는 겨울에는 마포나루까지 도강을 할 수 있었다.

한양이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쪽에서 목재 등 뿔감과 함께 경강의 조운과 물류가 많아짐에 따라 동호의 두모포가 번성하였다. 두모포는 도성(都城)의 흥인지문(興仁之門)과 광희문(廣熙門)을 통해 사람들 왕래가 많았고, 중랑천(中浪川)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포구였다. 두모포 앞의 너른 삼각주인 저자도(楮子島)는 일찍부터 빼어난 승경으로 서호지역과 함께 왕실과 사대부들의 정자와 별장들이 세워졌고, 경관은 시문과 견제 정선의 그림과 계획도 등에 묘사돼 있다. 무수막나루에서 압구정나루로 배가 왕래하였고, 압구정에서 보는 입석포(立石浦)와 전곶진(箭串陣)은 한강남쪽으로 가기 위해 전별(餞別)과 이별(離別)이 행해지던 곳이었으며, 1970년대 한강개발사업 전까지 배가 닿았던 압구정나루터를 강남향토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 압구정나루터[17]

조선시대 경강은 홍수가 나거나 일제강점기 때 을축년 대홍수 또는 한강철교와 인도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현대와 비교할 때 경관상 인공적 변화가 적었다.

1.2 한강정자 조성의 문화적 배경

조선시대는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성리학(性理學)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도교 불교 유교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천지인의 삼신사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에서도 볼 수 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신선사상과 풍수지리설에 따라 터를 잡는데 있어서 땅의 형승을 중요시했다.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도성은 북한산(華山, 삼각산)과 한강의 형승(形勝)을 고려했음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에

북거화산(北據華山, 북쪽으로 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임한수(南臨漢水,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는데) 등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전해온 도학사상은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에 의해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을 중요시 했다. 우리고유의 사상, 중국의 신선사상을 비롯해 무위자연으로 알려진 도학과 불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국교인 유교의 영향 아래 사상적으로 문화의 기틀을 잡아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누정 공간의 원형을 조성할 때는 신선사상과 무위자연을 반영하였다.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고 문화적인 풍류를 즐기려는 권문세도가(權門勢道家)들 또는 문인묵객들은 한강의 풍광을 읊으며 문학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였고, 한강 누정 또는 뱃놀이를 하면서 연회나 시회를 열어 풍광의 아름다움을 중국 한시의 시체로 차운(次韻)하여 작시를 하였다. 경강의 풍광은 중국 사신들에게 널리 알려져 사신들의 유람(遊覽) 코스로 이용되었으며, 압구정 또한 사신들이 찾고 싶은 명소였기에 남긴 시문 등은 황화집에 전한다.

조선을 찾은 예겸, 기순, 화찰(華察) 등의 문인들이 황화집에 한강유람기를 남긴 중에 화찰의 유한강기(遊漢江記)에는 정자배를 타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한강을 유람한 풍경을 묘사하였다. 한강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묻는 화찰에게 역관은 “자연의 승경이 활기찬 대도시의 문명과 어우러진 한강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앞서 살펴본 강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함”이라면서 한강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고, 조선의 승경은 “반드시 한강이어야 합니다(必也其漢江乎)[4]”라고 대답했다. 한강이 아름다운 것은 승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름이 난다는 뜻으로 한양도성이 가까이 있었기에 한강의 이름이 난다는 표현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이나 석숭(石崇)의 채택(梓澤)도 글이 없으면 빼어남을 잃는다’는 고사와도 통하는 말이다.

1.3 한강 정자의 역사문화적 경관과 장소성

중세의 문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가의 학문이나 자신의 심성(心性)을 수양(修養)하는 학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와 그림, 음악 등을 교양으로 삼았다[4].

한강을 경강이라 부르고 특히 호수에 비유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인 한강의 심리적인 경관해석이 작용한 것이

다. 유학의 발달과 함께 사의적(寫意的)인 문화를 구가했던 조선에서 물리적인 공간의 경관은 문화적인 활동, 경험에 따른 시간의 흐름과 작용하여 단순한 체험이나 경험을 넘어서 사상적 의미를 갖는 역사·문화 경관으로 인식되었다. 이유는 공간을 경험하는 행위가 주마간산(走馬看山)의 스쳐가는 시각적 경험을 넘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 언덕을 오르면서 경관을 감상하고, 경관을 사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체를 떠올리고 한시를 짓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마음의 경관읽기를 통해 공간은 흔(魂)이 있는 장소성을 갖는다.

조선시대 압구정과 관련한 시문, 회화와 지도에는 ‘압구’인 갈매기를 바라보거나, ‘압구정’이 보이는 경관에 작정자인 한명회를 의미하는 사의적인 해석이 스며있다. 고문헌 자료의 정성적(定性的)인 해석을 통하여 오랜 역사와 물리적인 공간의 변천 속에서 커커이 축적된 문화적 경관을 인식하고, 공유하고, 당시의 풍광을 은유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역사·문화 경관의 시대를 초월한 감성의 공유는 통합적인 자료발굴과 전승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활용에 비례하며, 현대적인 서울 한강의 경관너머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단편적이거나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장소성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 또는 장소와의 일체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도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방향성이며 일체감은 장소에 속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방향성’의 개념은 린치(Lynch, 1960)가 그의 저서(도시의 이미지)에서 제시한 인지도개념과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지도에 의미의 차원을 더하면서 일체감과 관련이 있다[5].

동호의 압구정은 소멸되어 표석만 세워져 있지만 한명회의 정자였다는 점과 압구정동의 동명(洞名)인 지명과 장소에 따른 인지도가 있다. 압구정지와 주변의 모든 경관이 변화되었지만 중심 경관인 한강이 흐르고, 문헌과 압구정지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의미는 세월의 변천에서도 지속된다. 주변에 솟아있는 높은 산들을 배경으로 바람, 갈매기, 해와 달 등의 자연환경은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함께 변함없는 경관특성이므로 선대의 시문이나 회화 등 문화적 향유(享有)를 통해 역사·문화적 장소성이 경험될 수 있고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면서 전통은 계

승된다.

1.4 한명회의 압구정 특성

한명회(1415-1487)는 38세인 문종 2년(1452)에 개성에 있는 경덕궁직의 미관말직을 하다 수양대군과 함께 계유정난(단종1년, 1453)을 주도한 이후 세도가의 반열에 오른다. 마포나루지역에 계유정난으로 화를 입은 안평대군의 담담정(擔擔亭)은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이 신숙주에게 하사하기 전까지 사용했는데 수양대군은 정난공신인 한명회 등과 담담정에 올랐을 것이며, 세도가의 반열에 오르던 때에 한명회는 강 건너 백사장 갈대로 유명했던 여의도 언덕에 처음 정자를 마련했다.

“한수는 도도히 흐른다. 도성을 흐르는 강물에는 역사가 실려 있다. 그 강물이 흐르기에 역사가 멈추지 않는지도 모른다[6].”는 구절에서 보듯 강물은 쉬지 않고 모든 역사를 품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한명회의 압구정이 회자되는 것은 우선 한명회의 인물론이다. 정자는 바람이 시원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마치 해와 달에 반사된 은빛과 금빛의 강물이 내다보이는 산언덕에 한강과 법궁(法宮)인 경복궁을 동시에 바라보는 남쪽에 세워졌다. 서호에서 동호로 옮긴 것은 동호에 위치한 압구정의 지형적 특성과 방위에서 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떠오르는 해를 상징하듯 저물지 않는 해를 바라는 듯, 훈구파(勳舊派)와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와의 갈등에 따른 세조의 견제 또는 사저(私邸)인 연화방과의 거리 때문일 수 있다. 세조실록에는 세조가 병으로 고생하던 말년으로 갈수록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여 훈구파와 견제를 시키고 있다. 압구정은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자연에 벗한다는 무언의 의미였지만, 성종실록에서 한명회는 왕의 부름과 물리침에 민감히 반응하였다.

한명회는 명나라에 네 번 사은사(謝恩使)로 갔는데 세조 3년(1457) 때 처음 가서 예겸을 만났고, 나머지 세 번은 성종 때이다. 세조 3년 명나라에서 예겸을 만나 서호정자의 ‘압구정’ 이름과 압구정기문을 받았다. 성종은 한명회를 장인이자 상당부원군으로 대우하는 한편 동시에 견제(牽制)를 했고, 한명회는 상당부원군이 된 후에 압구정편액을 달았다. 성종 7년(1476) 한명회가 동호로 압구정을 옮겼을 때와 그 이듬해 성종은 압구정에 나갈 것을

축하하며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시를 써주었다. 그러나 성종 12년(1481)에 중국사신 정동(鄭同)이 압구정을 방문한다고 할 때 한명회가 그것을 빌미로 왕실의 보침만(補簾幔)을 빌린다고 했을 때 제천정(濟川亭)으로 연회와 접대장소를 명하였고[7] 한명회는 왕실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탄핵되었다.

조선시대 동호의 압구정은 한강 남쪽 즉,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 압구정 조성 이후 주변에 많은 별장과 누정이 생겨나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행정명이 경기도 광주의 압구정리로 된 것이 후에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압구정동의 유래가 되었다. 한명회가 말년에 병을 얻어 사망한 곳이 압구정리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압구정은 상당한 규모의 별서였던 것이다.

2. 압구정의 이전과 경관적 특성

2.1 한강 남쪽에 세워진 정자

한명회는 도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한 걸음에 성안으로 내달리거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한강변에 별서를 마련했는데, 도성 거주 사대부들이 별서를 짓는 방식이었다. ‘별서에는 정자를 비롯한 여러 처소가 있어 주거와 풍류(風流)의 공간이 되었다.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에게 서울과의 거리는 별서의 입지조건 중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자 칭송의 대상이기도 했다. 당대 세도가의 별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많이 위치하였다[8]’는 것에 부합한다.

서울시 지도에 [그림 2]와 같이 압구정지를 표시해보니 한강은 폭도 정연하고 현대적인 경관을 보인다. 한강의 물줄기가 뚜렷하고, 산을 중심으로 개발된 도심의 면모가 드러난다. 옛 정자의 경관텍스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중랑천 등 지천, 남산, 응봉 등 산수경관(山水景觀)이다.



그림 2. 서호와 동호의 옛 압구정 위치 (재구성[18])

한국의 자연경관은 지형이 만들어 내는 경관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수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으며 풍류를 즐기면서 위안을 받고 신선의 경지를 교감해 왔다. 수려한 경관은 산수 유람과 풍류의 장으로써 자연향유의 다양한 모습들을 창출하였고[9] 압구정은 승경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였다.

2.2 서호에 세워진 압구정(狎鷗亭)

마포나루와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던 울도 즉 밤섬 지역은 서호광경 또는 마포팔영 등 경치가 수려한 곳으로 이름나 있었고, 나무가 발달하였다. 한명회가 지금의 여의도에 전장과 정자를 마련한 때는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이후다[10].

한명회는 도성 한양과 가까운 북쪽이 아닌 남쪽 풀이 무성하고 목축지였던 양말산 언덕에 정자를 마련하였다 [그림 3]. 도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분주한 지역이므로 민심을 살피기 용이하고, 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서호의 밤섬, 백사장 등 한강의 승경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정자를 세운 시기는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공조승지에 해당하는 동부승지가 된 때(1454) 또는 세조가 조선 제7대 왕으로 등극(1455)한 후 도승지가 된 세조 2년(1456)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서호의 옛 압구정 위치 (재구성[18])

한명회의 딸이자 성종의 비였던 공혜왕후(1456- 1476)의 출생지가 도성의 동부 연화방이었던 것으로 볼 때 정자는 그 이전에 서호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한명회는 세조 3년(1457) 세자 책봉을 위한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갔을 때(1457년 10월~1458년 3월) 한림

학사 예겸(倪謙, 1415-1479)을 만나(1457년 겨울) 서호에 세운 정자의 이름인 압구(鴨鷗)와 기문인 압구정기(鴨鷗亭記)를 받아온다.

한명회는 ‘세조 7년(1461) 2월 하순에 권람, 신숙주, 서거정 등과 함께 한강누각에 나가 연회를 열고 시회를 했었다[10].’는 기록을 볼 때 문화적인 풍류를 즐기는 주취자의 세도를 살펴볼 수 있다. 김수온은 한명회의 부탁으로 정자와 예겸의 기문을 본 후 압구정기문을 지었고 이후에 여의도 정자에 예겸의 압구정편액(鴨鷗亭扁額)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2.3 동호에 세워진 압구정(狎鷗亭)

한명회가 여의도에 있던 정자를 동호의 두모포 건너 강 남쪽으로 옮긴 것은 성종 7년(1476)의 일이다[10]. 동호의 정자가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한명회의 권력기반으로 추정할 때 성종 비(妃)였던 공혜왕후(1456.11-1474.4)가 죽기 전이 그 이후보다 가능성이 있다. 세조 12년(1467) 1월 결혼하여 성종이 왕위(1469.11)에 오르면서 왕비가 된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는 성종 4년(1473. 7) 병을 얻어 이듬해 성종 5년(1374) 4월에 죽는다.

이후 한명회는 성종 5년(1475년) 명나라 사신사로 갔다 돌아올 때 중국의 문집과 중국 문인들이 지은 압구정 시축을 받아와 성종에게 바치고 이듬해 성종 6년(1476.11) 왕에게 칠언절구 시를 하사받으면서 압구정은 더욱 유명해졌으며, 많은 문사들이 차운하여 시를 써주는 등 압구정은 당대의 세도가뿐만 아니라 중국 사신들도 방문하고 싶은 한강의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한명회의 두 딸이 예종과 성종의 비였지만 12년의 간극을 두고 요절을 하는 비운을 겪었으므로 동호의 압구정은 공혜왕후(1469.11)가 되고난 후부터 병을 얻기(1473.7)에 세워졌을 것이다. 한명회는 비록 도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강 건너편 경승지에 정자를 마련했어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무위자연적(無爲自然的)인 삶을 염원했기 보다는 권력기반을 위한 처세와 강호에 면한 정자에서 연회, 시회 등의 모임과 휴식, 풍류를 즐기려 했던 것이다.

한명회 사저인 동부의 연화방에서 송례문을 통한 여의

도 정자보다 흥인지문이나 광희문을 통한 동호의 압구정 출입이 거리가 가까워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한명회의 정자는 비록 한강 남쪽에 있었다곤 하나 그 위세만큼이나 위치와 규모도 위풍당당했다.

강물이 잠실을 지나 북서쪽으로 꺾이듯 북서 방향으로 돌다가 남서쪽으로 흐르는 솟아오른 산언덕에 한강을 마주하고 호화롭게 솟아있는 압구정의 위용은 한명회의 명성과 함께 승경과 지명도가 뛰어났다. 압구정과 동호의 경관은 서로 바라보고 보이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1956년 사진에는 저자도와 한강이 보이고 건너편 언덕이 압구정지이다. 시점장인 압구정에서 북쪽에는 입석포, 독서당, 제천정, 저자도, 진곶진이 멀리 삼각산을 배경으로 하고, 강남쪽 원경의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이 수경관과 계절에 따른 변화된 풍경을 보였다.



그림 4. 한남동에서 건너다 보던 압구정터 봉우리, 1956년[2]



그림 5. 동호의 압구정 (재구성[18])

동호 압구정은 규모, 명성과 수려한 풍광 때문에 점차 권문세도가들의 별장이나 정자가 주위에 많이 들어섰고, 조선 중기에는 한 때 독서당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시인이나 묵객들이 시회를 열기도 했었다. 정자는 조선 말기에 철종의 부마였던 박영효에게 저자도와 함께 하사되어 갑신정변의 주범 주역들이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11]. 압구정의 지명도는 시문은 물론 회화와 지도에 나타났고 행정명에서 경기도의 압구정리로 명명되었다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압구정동으로 변화되었다.

3. 문헌을 통해 본 압구정의 장소적 특성

한명회는 세조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성 남부의 명례방 지역에 거주하여 승례문을 거쳐 마포나루와 서호까지의 길이 지척이었으나 동부 연화방으로 이전하였다. 한명회는 북쪽의 삼각산을 배경으로 왕이 임어하는 공간인 한양 도성을 대경으로 한강 남쪽 높은 산 언덕위에 정자를 세웠고, 시점으로 바라보는 경관은 자연산수와 뱃놀이와 같은 강호 문화 경관이었다.

주위의 경관은 산과 언덕, 벌판, 백사장, 갈매기, 해와 달, 날씨의 변화에 따라 내리는 비, 안개, 바람 등 기상현상과 강을 오르내리는 배를 감상하는 행위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동호의 압구정은 연회, 시회, 휴식, 은둔을 위한 복합적인 강호문화의 장소였으므로 규모가 컸으며, 나루터가 있으므로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압구정은 많은 문헌자료가 있으나 반복된 내용과 시문이 많다. 본고는 역사문화의 경관적 관점을 조사하기 위해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문과 시문 일부를 인용했다.

3.1 압구정 기문

정자기문은 한명회가 1457년 10월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예겸(倪謙)을 만나 시로써 화답하는 중에 받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7]. 세종 때 예겸이 조선에 사신으로 왔을 때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과 만났고, 제천정과 한강 뱃놀이에서 즐겼던 아름다운 경관을 회상하면서 압구정의 의미와 정자를 찬하였다. 조선 초기 예겸의 압구정기문을 비롯한 명나라 사신 진가유(陳嘉猷), 기순(祁順), 장근(張瑾)은 한강에서 정자선을 타고 유람하면서 연회와 시회를 열고 황화집에 압구정시문을 남겼다.

중종 25년(1530)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광주목조」 예검의 「압구정기」에는 세종 때 한강을 유람했던 추억, 한명회의 정자 이름과 기문 부탁받는 상황, 압구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과 압구정의 유래인 송나라 재상 한기(韓琦)의 일화를 나타냈다. 특히 예검은 “오직 기심이 없으면 갈매기도 자연히 서로 친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써서 한명회의 기심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上黨府院君韓明滄，構亭於豆毛浦南岸。奉使入大明，請名於翰林學士倪謙，謙命以狎鷗而爲記。其後乙未歲，又奉使入大明，求詩於樞紳，武靖侯趙輔等以謂此狎鷗亭主人也。’共贈以詩，亭名遂聞於中朝。”(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을미(1475) 임오일(6월 5일).

김수온(金守溫)의 식우집(拭疣集) 압구정기(鴨鷗亭記)는 양화진 북쪽과 마포 서쪽인 여의도 언덕에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정자를 지어 예검에게 압구정과 기문을 받고 김수온에게 기문을 부탁한 경위, 압구정에서 보는 도성과 산들과 한강의 풍광묘사, 압구의 의미와 한강의 절경을 푸른 물, 해, 파도, 상선, 우뢰, 솟는 물결 등으로 표현하면서 정자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승경을 큰 경치로 묘사하였다[11]. 김수온이 강조한 것은 한명회 정자의 가장 큰 풍광은 한강 그 자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변 경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세월의 역사와 문화를 신고 흘러간다. 기문에서는 격물치지의 의미를 담아 은유적으로 상징성을 표현한 의경(意境)[12]이 압구정기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압구정 시문

「사가문집 제3권」의 ‘압구정 제명에 대한 기문’에는 한명회가 겸퇴(謙退)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편액을 ‘압구’라 짓고, 한 위공(韓魏公)의 고사를 끌어다 기문을 지었고, 많은 문인들이 시를 지은 것을 가상히 여겨 왕은 병신년(성종7년,1476) 11월에 근체시와 절구를 각각 2수씩 짓고 정유년(1477)7월에 또 칠언사운(七言四韻) 4수를 지어 하사함으로써 한명회가 정자의 벽에 공경히 걸어놓았으며, 이와 함께 많은 문인들이 서(序), 부(賦), 찬(讚), 시(詩) 등을 지으면서 정자가 더욱 빛이 나고 유명

해졌다고 기록되었다. 한명회는 이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돌에 작품 8수, 예검을 비롯한 중국문인 29명과 월산대군을 비롯한 조선문인 75명의 이름을 판각하였다고 했다. 사신사 기순(祁順)의 시문을 본다.

題狎鷗亭	압구정에 쓰다
瀟灑衡茅漢水東	맑고 깨끗한 멧집이 한강 동쪽에 있는데
主人情與白鷗同	주인의 심정은 흰 갈매기와 같다네
尋盟肯負沙邊侶	거듭 다짐하나니 어찌 모랫가 쪽을 저버릴 수 있으랴
易慮深慚海上翁	생각을 바꾼다면 바닷가 노인에게 매우 부끄러우리
野渡浮沈千頃雪	들 나루터엔 천 이랑의 눈발이 떴다 잠기건만
釣船來往一絲風	낚시배는 한 줄기 바람을 타고 오가네
相門德業光前後	재상 가문의 덕업이 앞뒤로 빛나니
不但名亭比魏公	단지 이름난 정자만 위국공과 닮은 것이 아니라네[3]

시문은 바라보이는 승경을 통하여 작가 자신의 심경과 사상을 빚대어 표현한 것, 즉, 격물치지의 경치가 일반적이다[1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압구정 읍은 시를 통해 압구정의 역사·문화 경관을 살펴보았다. 시에는 한강 정자에 날아드는 갈매기와 백사장, 갈매기와 친암, 배, 낚시, 한가함, 그윽하고 외로운 정자, 바람, 구름, 푸른 물, 창, 난간, 자유, 유학자, 비, 눈, 나루터, 버드나무 등 강호의 풍광이 시어로 표현되어 있다.

요약하면, 난지도가 보이는 서호의 여의도 양말산 언덕의 정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초정(草亭)이었다. 시에는 전반적으로 압구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심(機心)과 무심(無心)을 강조하였다. 한명회에 대한 찬사와 비방은 말년에 동호에 마련한 압구정 시문에서 빚대어 표현되었고 문인으로는 김시습(金時習), 임제(林楨)와 최경지(崔慶之) 등이다. 이들은 한명회의 압구(狎鷗)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10].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재집에는 성종에 화운한 시와 임제의 풍자(諷刺) 시가 수록되어 있다. 어제시에 화답한 점필재 김종직의 시다.

恭和御製鳴鷗亭詩 어제 압구정시에 삼가 화답하다
 江水江花秋復春 강의 물결과 꽃 속에 봄가를 보내시니
 忘機魚鳥使來親 욕심을 잊어 물고기와 새들이 와서
 친하네
 亭中日柱看山芴 정자에 매일 홀을 잡고 산을 보는데
 自是凌煙畫裏人 능연각공신 그림중의 그 사람이네[3].

표 2. 시문을 통해본 경관[7]

문인	경관
태복시승(大僕寺丞) 김식(金湜)	"초정(草亭), 한강, 백구가 짝이 될 만하니 한가로이 날아갔다 날아오는구나.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	정자, 물과 구름 사이에 산뜻, 깨끗, 갈매기 는 서로 친하여, 푸른 물가 붉은 난간, 아침 저녁 퇴근, 한가
급사중 장녕(張寧)	물과 구름 초정(草亭), 손, 흰 갈매기 한가로 운 심사(心事) 한가하게 이야기, 부슬비와 비긴 바람
무정후(武淸侯) 조보(趙輔)	정자 높이 큰 강, 동쪽을 굽어보는데, 갈매 기, 기심을 잊어, 한가, 청풍
정서후(定西侯) 장완(蔣完)	그윽하고 고요함, 정자, 꽃다운 물가, 맑은 바람, 깨끗한 옥과 같은 새, 청산, 모래, 푸 른 이끼, 물결 편평, 흰 구름, 한가.
태자소보(太子少保) 왕월(王鈞)	물 구름 고장속에 초정이 그윽한데, 정자, 갈매기, 마음과 경계가 고요, 한가
병부 상서(兵部尙書) 항충(項忠)	외로운 정자, 푸른 물가, 흰 갈매기와 벗, 한 가한 마음, 물결, 빛, 연꽃 기운.
병부 좌시랑(兵部左侍 郎) 등소(滕紹)	작은 정자, 낚시터, 갈매기, 잔 물결, 가벼운 바람, 돛대
이부 좌랑(吏部左郎) 유비(劉斐)	그윽한 정자, 강가, 강물은 맑고도 깊네, 경 치는 그윽함, 물결 갈매기, 한가함
호부낭중(戶部郎中) 이형연(李炯然)	모정(茅亭), 푸른 강, 갈매기, 작은 배, 낚시, 그윽한 창, 거문고 소리, 강호(江湖), 무심 (無心)
교유(敎諭) 오가립(吳可立)	한 정자, 바다, 동쪽, 못 갈매기, 창파, 흰 털, 푸른 풀밭, 눈[雪]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頌)	산뜻한 초가집, 한강 동쪽, 백구, 모랫가, 낚 시배, 실바람이 살랑이네.
신숙주(申叔舟)	취미를 산수. 맑은 마음, 임천(林泉), 높은 정자, 강가, 흰 갈매기, 한가, 난지(蘭芝)를 바늘로 꿰어 차니, 한강 연파(煙派), 아침 저 녁 강에 있네. 중국의 유로(儒老)들 서술 하고 칭도, 갈매기
이승소(李承召)	산 그윽한 곳, 아래 맑은 강, 만고에 흐르더 라. 여가 날, 거닐어,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 니, 마음이 한가, 몸이 한가, 빈 배, 기심, 강 변 갈매기 친압, 강가, 맞은 언덕 바람 청량 (滄浪), 난간에 의지, 흥, 물, 해염, 구름, 자 유, 강 위, 바람, 비, 남촌과 북촌에 뽕과 삼 이 풍년, 태평한 아름다움, 조용함
이문형(李文炯)	빛나는 정자 높이 한강 물가에 임하니, 성남 (城南) 지척, 달밤, 연기는 개울에 비끼고, 버드나무, 물고기, 비, 나무터, 난간 앞 물 결, 흰 갈매기와 친하네.
최경지(崔敬止)	임금이 하루에 세 번이나 은근히 불러, 총 애, 정자는 있으나, 놀 틈, 기심만 끊어졌다 면, 벼슬 바다, 갈매기를 친압할 수 있으면 만

본 연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서거정의 서문
을 중심으로 한 시와 이종목[14] 외에 서울시사편찬위원
회[11]에 나오는 시를 경관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성종
의 어제압구정시에 차운한 시에서는 압구정을 찬(贊)한
다. 성종이 한명회에게 내린 어제시를 화려한 현판에 새
기고 금빛으로 장황을 한 후 정자에 걸은 것에 대해 논란
이 많았고 결국 현판은 철거되었다.

조선초기 왕의 어제시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집권자
인 왕으로부터 유학과 시학을 부흥시키고 문학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며, 중국과의 외교에 활용하기 위
한 목적[14]이 있었기에 일부 반대가 있음에도 어제시가
지어지곤 했다. 성종의 압구정어제시에 화운한 수백편의
시는 서거정의 서문과 함께 「사가시집 제5권, 「삼탄집
제6권」 등에 실려 있다[7]. 서거정은 압구정제명기(鴨鷗
亭題名記) 서문을 쓰게 된 배경을 중국 고사인 당나라
하지장과 당 현종과의 관계에 빗대어 군신간의 아름다운
뜻을 기리는 것이라 서술하였다. 한명회가 “네 차레나
공신이 되고 세 차레나 의정부에 들어갔으나 명제가 차
고 넘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 정자를 압구(狎鷗)라
편액하고 한수(漢水)의 물가에 터를 잡아 정자를 짓고자
하였다. 상이 윤희 하시는 한편 어제시를 하사했으며 널
리 알려야한다”고 기록하였다.

어제시에 화운한 시들 역시 기심을 중심 시어로 하고,
한명회를 칭송하면서 우뚝 솟은 압구정을 찬하였다. 시
어는 강호의 경치와 풍광으로 빗대어 긴 강물, 초목, 성
남쪽, 밝은 달, 갈매기, 바람, 안개, 꽃, 봄, 가을, 낚시배,
물새, 모래톱, 수양버들, 길푸른 나무로 서정적으로 묘사
하였다. 한명회 사후 압구정은 문인묵객들이 올라 시를
짓거나, 한 때는 독서당으로 사용했는데, 16세기 조위(曹
偉)가 홍문관과 동호에서 시회를 가지고 압구정에 올랐
고, 독서당으로 이용되는 기간에 홍문관교리였던 이항
(李滉)이 1543년경 임형수(林亨秀), 정유길(鄭惟吉)등과
압구정 뒷산에 올라 시회를 가졌다[4].

동호의 압구정 지역은 단순한 자연 승경지에서 한명
회가 정자를 짓고 난 후 당대 문인들의 사상과 문학과 풍
류 등 문화가 있는 장소가 되었고 압구정등으로 자리매
김하기까지 동시대의 역사적, 문화적인 경관을 부여하면
서 두터운 겨울 형성해온 명승지였다.

4. 회화지도 자료에 의한 압구정 장소성

시각적 자료인 회화나 지도는 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는 한강변 풍경의 회화로써 명나라 장수 만세덕(萬世德)이 임진왜란 후 선조 31년(1598)에 조선에서(1598-1666년) 그린 이수정도(二水亭圖), <만세덕첩(萬世德帖)> 중 실경도를 들고 있다. 임진왜란 후 선조의 유업을 기억하고 감상하고자 선세별서도(先世別墅圖) 풍조(風潮)가 생겼고, 17-18세기 회화로 발전하였다[8].

4.1 압구정 회화

조선시대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거장으로 알려진 겸재(謙齋) 정선(鄭澈)(1676-1759)의 1741년 압구정도는 동호의 압구정을 중심으로 그린 한강변의 명승명소도이다. 경교명승첩에 실려 있는 압구정1은 동호의 압구정이 세워진 후 근 270년 되었을 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본 경관이다. 남쪽 높은 산언덕에 위치한 압구정은 마루둘레에 난간을 둘렀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호화스런 위용을 자랑한다. 정자 주변에 향나무 고목이 감싸고 있으며 주위에 별서들과 마을의 초가들이 있다. 한가하게 흐르는 한강과 고요한 수면 위를 들락거리는 금빛 모래사장에는 배가 정박해 있거나 떠있다. 강 건너 무학봉, 응봉,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보인다.



그림 6. 겸재 정선, <압구정>1, 비단에 채색, 31.0 x 20.0cm, 1741년, 국립중앙박물관[11]

압구정2는 월대와 높은 기단,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이는 큰 규모의 정자를 보여준다. 주위 강가에는 버드나무, 소나무가 우거지며 고목의 향나무가 감싼다. 뒤편에는

별채가 아늑하게 세워져 있어 도성 사저를 떠나 장기간 기거가 가능했었다. 주변에는 초가집의 민가들이 있다. 상단의 화제(畵題) ‘차작여취, 사훈역력, 한양수구, 상질(此作與崔, 司勳歷歷, 漢陽樹句, 相軼)’은 압구정을 중국동호의 황학루에 빗대어 최사훈(최호, 崔顥·704-754)의 ‘역력한양수(한양의 나무들이 역력하구나), 즉 압구정의 한강 풍광이 황학루 못지 않노라는 감탄이요 자랑이라는 구절과 맞바꿀 만하다고 표현하였다[15].



그림 7. 겸재 정선, <압구정>2, 비단에 채색, 29.5 x 23.5cm,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11]

초원(蕉園) 김석신(金碩臣, 1758-1822)의 ‘압구청상(鴨鷗淸賞)’은 ‘갈매기와 벗하며 맑은 경치를 즐긴다’는 뜻이다. 압구정 안에 넷, 밖에 셋 그리고 세 명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한 정자는 위용을 자랑하듯 솟아올라 바람을 맞으며 강의 경치를 감상하는 풍경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강에도 바람이 인다. 압구정은 모임이나 시회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김석신, <압구청상>, 30.9 x 23.5cm, 선문대학교박물관[10]

그 외에도 압구정그림은 작자미상의 사용원계회도(司養院契會圖)와 계회도(16세기) 등에 있는데 정자는 강 언덕위에 서있고 전망이 시원하다. 원경, 중경은 북쪽의 삼각산, 백악산과 아차산, 근경의 한강과 백사장, 모래톱, 떠있거나 정박 중인 배 등을 묘사했다.

4.2 고지도의 압구정

고지도는 산수를 표현하고 동호 남쪽에 압구정을 문자로 나타낸 회화식 지도이다. 그러나 근대를 거쳐 일제강점과 6·25 사변을 겪는 등 시대적인 격변 속에서 회화식 지도는 사라지고 철도 등 교통망과 가로망을 따라 축척과 기술적으로 제작된 현대식 지도로 바뀐다.



그림 9. 한양도, 1760년대 (재구성[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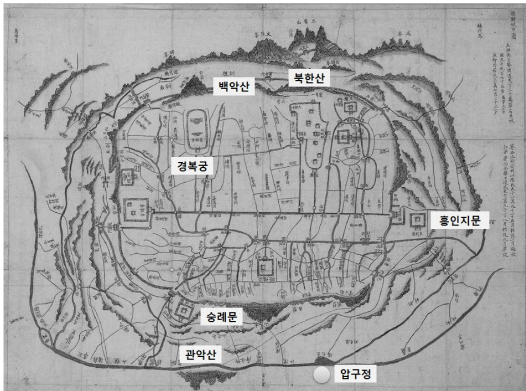


그림 10. 조선성시도, 1830년 (재구성[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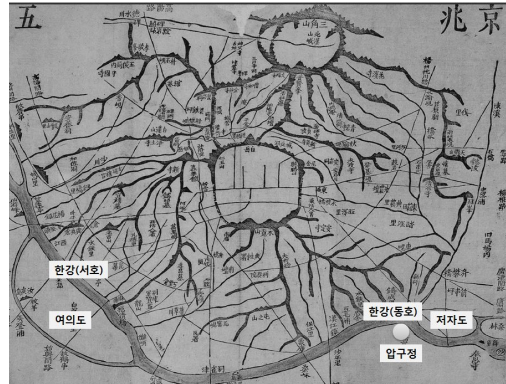


그림 11. 경조오부도(동여도), 1856년-1872년 (재구성[18])

1760년 한양도 - 경조오부도는 도성을 중심으로 산수 경관이 건물, 가로망, 한강변 모래톱, 섬들과 함께 세밀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지도에는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외사산과 내사산이 도성을 감싸듯 받치고 내수와 외수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남쪽 앞으로 튀어나온 산언덕에 자연·문화 경관을 아우르는 파노라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동호의 압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의 경성도에는 저자도, 전곶평이 압구정 건너편에 펼쳐져 있고 한강 수변에 모래톱이 발달해 있다. 자연하천인 한강은 하류에 위치하여 우기에는 하중도와 모래톱의 변화를 가져오곤 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는 한강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저자도를 가르는 물길의 생긴 것도 그 이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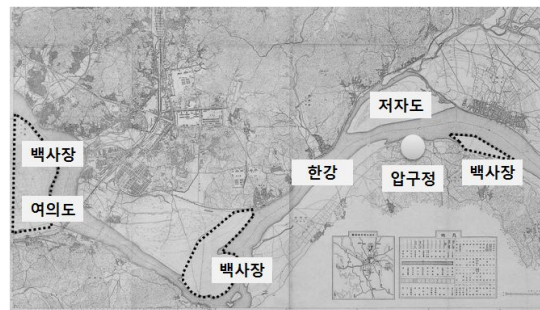


그림 12. 경성도 1922년 1:10,000 (재구성[18])

그러나 건기 때는 한강변에 백사장과 모래톱 주변에 갈대가 무성하고 아직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동

호 주변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한국전쟁 후 복구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동호의 압구정 언덕과 나루터의 백사장, 저자도는 사라졌다. 말목축장이었던 전곶평 일부는 서울 숲이 되어 꽃사슴이 뛰노는 공원녹지로 바뀌었지만 한강은 치수사업으로 더 깊고 더 넓어진 채 유유히 흘러간다.

5. 압구정 현황과 역사문화적 경관가치

1960-70년대 진행된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압구정지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시의 한강 연장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40.19km인데, 한강 양안에 제방이 생기고 토지가 매립되어 도로와 교량이 개설되었고, 압구정 지역은 저자도를 파괴하고 매립한 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압구정지의 변화를 보면 한강에 인접하여 모래톱과 언덕이던 곳이 매립사업으로 육지가 넓어지고 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와 교량인 성수대로와 동호대교가 놓여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0여 년 간의 세월은 압구정지의 지형적 변화에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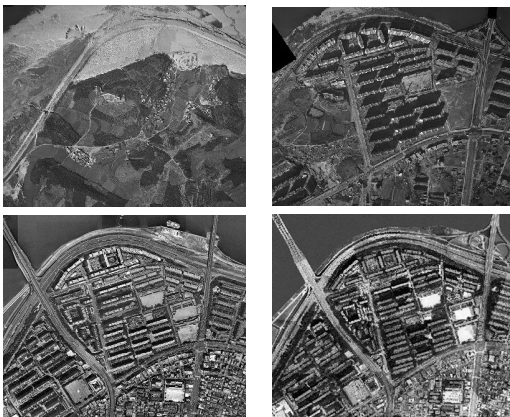


그림 13. 현대의 압구정지 변천 (재구성[18])

한강에 면한 승경지로서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동시대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압구정지는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문화 속에서 지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문화적 지식과 의미가 상실된 채 상업적인 의미로 퇴색되었다. 한강은

동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싣고 유유히 흐르고 표석만 남은 압구정은 역사·문화적 경관자료의 근거다.



그림 14. 현재의 압구정지 위치 [19]

압구정지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 아파트 단지 내 표석이 정자의 옛터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족한 정보와 방치되어 쇠락한 모습은 지명도에 비해 초라하다. 택지로 개발되기 전 근 500년간의 세월 동안 한강 정자의 역사·문화적 경관 특성과 동호 압구정의 지명 유래가 담긴 의미를 간직한 장소로서의 퇴락한 현장을 보여준다.

18세기 중엽 서울의 인구가 약 30만명[16]이었던 것에 비해 인구 1000만에 버금가는 거대도시 서울의 현대화와 글로벌리즘은 고유의 역사문화 정신을 망각한 채 문화적 향유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천과 개발의 논리에도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도심의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한, 압구정의 역사·문화적 경관에 내재된 의미와 흔적은 지속된다..

압구정동에서 지명의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통해 장소의 의미를 기억하고 승계함은 전통문화의 전수차원에서 중요하다. 압구정지의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역사·문화적 경관의 흐름을 현대화된 공간과 시대를 뛰어넘어 선대의 시문학적 감성과 회화적 관점에서 역사·문화적 경관을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향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압구정을 시점장으로 바라보고 보이는 경관에 대한 역

사·문화 경관의 이해와 통합적인 자료를 통한 강호 역사 문화 경관의 문화적 콘텐츠 활용이 필요하다.

IV. 결론

조선시대 한강 남쪽에 세워졌던 한명회의 압구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압구정이 세워졌던 한강지역은 왕실, 권문세도자들 뿐 아니라 중국 사신들이 누정 또는 정자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던 대표적인 유람코스이자 문화적 풍류의 장소였다. 학문을 숭배하는 조선왕조의 지식인들, 문인목객 뿐 아니라 모두에게 도심과 가까운 강호(江湖)승경지로서 복합적인 기능의 낙원(樂園)이었다.
2. 서호 정자는 1454-1456년 조성된 초정(草亭)이었고, 압구정동의 유래가 된 동호의 압구정은 1469-1473년경 조성된 별서였다. 서호 정자는 잊혀 졌고 동호의 정자는 압구정동의 지명 유래와 함께 기억된다. 경관은 자연승경과 무위자연의 사의적인 경관이 작용한다. 압구정 경관은 서호와 동호의 경관과 함께 하되, 동호 정자는 나루터가 가까이 위치한 높은 산 언덕에 푸른 숲 원림을 배경으로 호화로운 전면 5칸 이상 팔작지붕의 웅장한 건물이며, 뒤편에 기거할 수 있는 별채가 있었다.
3. 한강개발사업 전까지 압구정과 주변경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개발은 서울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도시의 기능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압구정이 있던 산언덕은 없어지고, 강과 대상지 사이에 울림 피도로가 건설되어 압구정지가 강에서 멀어지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4. 과거 한강 주변의 정자 중 효사정, 낙천정, 망원정, 소악루 등 조선시대 승경지로 유명했던 정자가 일부 복원 되어 있으나 강호 누정 문화의 상실로 인해 권력자들의 별장과, 조선문인들의 놀이 장소로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정자의 장소성을 현대에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5. 시대변천과 함께 물리적 경관이 변해도 한강이 한양 도심 사람들의 중요한 놀이터였으며 현재에도 시문과 회화가 남아 있는 한 압구정지에는 강호 누정 문화의 특성이 남아있다. 즉 압구정지의 경관에는 장소성이 있고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경관텍스트이다.
6. 경관의 가치는 경관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과 현대도심의 삶이 어우러진 문화가 있어야 한다. 즉 동시대의 문화를 켜켜이 쌓으며 후대에게 전승되어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오랜 스토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경관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
7. 조선시대 한강 주변은 수려한 풍광, 정치 중심지였던 사대문에서 가까운 거리 때문에 권문세도가의 별장이나 시인문객들의 시회의 장소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특히 권력자들의 별장으로, 조선문인들의 놀이 장소로 문화의 중심지였던 정자의 장소성을 현대에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는 장소에 대한 고증적 자료의 부족, 장소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원인이라 사료된다. 특히 지역의 장소성을 사회적 담론화하는 것은 지역을 고증할수 있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명회의 압구정은 작정자 개인과 시대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고, 강남의 대표적 지역명으로 현재에도 회자되는 한강변 대표적 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켠에 표석만이 놓여있다. 차후 한강의 생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하여 한강변 자연형 호안의 복원과 그 주변의 정자복원 시 가시적인 복원은 물론 이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 2012.
- [2] 윤진영, 이종묵, 심경희, 이현균, 배정환, 한동욱, 안창모, 박철수, *한강의 섬*, 마티, pp.47-94, p.126,

pp.204-227, 2009.

- [3] 이국진,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 제25집, pp.7-42, 2012.
- [4] 이종묵, “16세기 한강에서의 연회와 시회”, 한국시가 연구, 제9집, pp.5-28, 2001
- [5] 임승빈, *경관 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98-199, 2010.
- [6] 신봉승, 소설 *한명회*, 갑인출판사, p.164, 1994.
- [7] <http://db.itkc.or.kr>.
- [8] 이성무, *조선의 양반, 조선의 사회와 사상*, 일조각, 1999.
- [9] 안계복, “희양산 경관의 역사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4호, pp.40-48, 2011.
- [10]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pp.143-161, 2006.
- [1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누정*, 서울시, 2012.
- [12] 노재현, 박태희, 신상섭, 김현욱, “기문(記文)을 중심으로 고찰한 임대정원림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4호, pp.14-26, 2011.
- [13] 소현수, “차경(借景)을 통해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4호, pp.59-69, 2011.
- [14] 이종묵,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pp.169-196, 2008.
- [15] <http://www.munhwa.com>
- [16]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8.
- [17] <http://gangnam.grandculture.net>
- [18] <http://gis.seoul.go.kr>
- [19] <http://map.daum.net>

저 자 소 개

김 선 화(Sun-Hwa Kim)

정희원



- 2012년 2월 :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환경조경전공(이학석사)
- 2012년 3월 :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환경조경전공(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박사과정

<관심분야> : 전통조경, 조경시공감리

이 재 근(Jae-Keun Lee)

정희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전공(이학석사)
- 199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전공(농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전통조경, 별서정원, 문화재, 명승